

대학생 해외연수의 필요성 및 문제점



장 보 안 | 강원대학교 국제협력부장

해외연수는 필요하면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해외연수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라고 조언하고 싶다. 나의 진로를 먼저 선택하고 앞으로 본인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여 해외연수를 가야 할 것이다.

I. 머리말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의 획기적인 발달로 현재의 세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특히 WTO 체제의 출범으로 국경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어서 세계의 어느 나라도 홀로 살 수 없게 되었다. 교육, 환경, 경제 등에서 각국은 긴밀히 연계되어 한 국가에서 발생한 문제는 단지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의 여러 나라가 긴밀히 협조하고 논의해야 되는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어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어 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고 있다. 특히 세계의 공용어나 다름없는 영어는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외국어로 인식되어 많은 학생들이 해외언어연수를 다녀오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해외연수의 필요성

첫째, 외국어 습득에 대한 필요성이다. 냉전 체제의 종식 이후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고 현실적으로 세계 공용어가 되어버린 영어를 외면하고서는 국가 발전과 그로 인한 사회의 발전을 이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많은 대기업의 입사 조건에서 영어가 필수인 상황에서 영어의 구사 능력은 이제 한 개인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까지 십수년간 영어를 배우지만 영어에 능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1998년도 조사에 따르면 영어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최상급 영어

실력을 갖춘 인원은 국민의 1% 정도이고 공무원의 83% 이상이 자신들의 영어 실력은 중간 이하라고 평가했다. KBS 일요스페셜에 방송된 아래의 내용은 영어의 미숙으로 인한 손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IMF가 한창일 때 스웨덴의 불보 그룹이 50억 달러를 한국의 중장비 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방송에 보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다음날이 보도는 “건설기계 경기가 회복하려면 한국 정부가 5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말을 우리 측에서 잘못 알아들었다고 보도하여 국가적인 망신과 큰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영어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으나 영어에 능숙해지는 것은 쉽지 않다. 언어란 그 나라의 문화, 관습,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수학의 공식을 외우듯이 본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지지 않는 현실에서 그 나라에서 직접 생활하며 언어를 배우는 것은 필수적이고 해외연수를 통한 외국어의 습득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선진 기술, 학문 습득의 필요성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현재는 OECD의 회원국이 될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 경제발전과 과학 기술의 많은 부분이 해외에서 선진 기술과 학문을 습득하고 귀국한 학자들의 공로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는 우리나라도 IT, BT 분야 등에서 세계의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외국의 기술수준에 뒤떨어지는 현실에서 해외연수는 선진 기술이나 학문의 빠른 습득에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국의 문화 체험 및 도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

화 이후 많은 국민들이 해외여행에 나서고 있으며, 2003년에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은 약 850만 명으로 국민의 5분의 1 정도가 해외여행을 한 셈이다. 이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단순한 여행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젊은 학생들에게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오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도전의식을 가지고 포부를 넓게 가지라고 항상 권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도 있듯이 젊은 시절에 외국에서 느낀 충격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Ⅲ. 해외연수의 문제점

먼저, ‘꼭 필요한 사람이 해외연수를 하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연수에 나서고 있으며, 요즘 대학 사회에서는 ‘해외연수는 필수’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물론 해외연수를 정규교과와 연계하여 해외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여 주는 대학도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간 휴학을 하고 해외연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가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지만 막상 사회에 나간 후 어렵게 배워 온 외국어나 기술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수출이나 수입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이나 외국인과의 접촉이 잦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외국어가 매우 중요하고 해외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외국어가 활용될 수 있으나 내수를 위주로 하는 기업이나 외국인과의 접촉이 적은 기업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배워 온 외국어가 사장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둘째, 심각한 외화 유출 문제이다. 2004년 1년 동안 유학 및 연수비용으로 해외로 송금된 금액이 75억 달러나 된다고 한다. 한국의 경제 규모로 볼 때 이 정도의 금액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빈약하여 수출에 의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처지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자동차 한 대를 수출하여 벌어들이는 외화를 1만 달러 정도라고 할 때 유학이나 해외 연수를 통하여 약 75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하여 벌어들인 외화가 고스란히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셋째, 해외연수를 가는 학생들과 가지 못하는 학생들과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부모에게 경제적인 의존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인의 능력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 해외연수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해외연수를 가는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과 본인은 동참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 혹시 뒤처지거나 앓는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넷째, 단기 연수는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미약하다. 1학기 혹은 1년 동안과 같은 장기 연수를 경제적 시간적인 문제로 갈 수 없는 경우 많은 학생들이 2주 혹은 4주의 단기 연수를 선택하여 해외로 나가고 있다. 언어란 4주 이내와 같은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술 연수와 같은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 5백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얻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해외언어연수가 영어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과 같은 나라들은 교육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매년 많은 해외연수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한국 학생 또한 대부분 영어권에 집중적으로 해외연수를 가고 있다. 물론 영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권에만 집중되기보다는 다양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IV.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연수는 필요하면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해외연수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라고 조언하고 싶다.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간다는 형태보다는 나의 진로를 먼저 선택하고 앞으로 본인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여 해외연수를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어학공부와 자원봉사가 동시에 해결되는 워크캠프를 권하고 싶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외국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워크캠프를 통하여 외국어 습득과 외국의 체험을 동시에 이룩하고 있다. 해외 인턴십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생각된다. 

장보안

서울대학교 지질학과를 졸업하였고, 동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워싱턴대학교에서 지질 및 지구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원대학교 자연대학 지구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강원대학교 국제협력부장, 한국국제교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공과 관련된 50여 편의 논문과 80여 편의 학회발표 논문을 발표하였다.